

##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성동 11-1 02-0552-8200 © 2004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경삼 편집인: 조광현 편집: 이태복

## 2005년도 단기선교를 위한 제1차 CMTC총련

11월 28일(주일) 오후 6시 10분에 개강

## 2005년도 사무직분자 요람과 관련하여

교회는 모든 사무직분자들이 교회의 조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역을 통해서 요람을 기억하여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직분자 요람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 요람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현재에서 실제로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소개하고 일리는 요람입니다. 2005년도 사무직분자 요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고백이 생겼습니다. 사무직분자 함은 최소한 교회의 모든 공역에 및 집회에 성실히 참석하고, 하루하루 바빠야 할 헌신을 장려하게 드리며, 모든 사무직분자들이 기본적으로 성서는 일제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터인데, 이런 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위와 같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하여 신자로서의 본분과 사무직분자의 기본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기회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위와 같은 분들을 지금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복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였든지 이번 주일부터 올 해 말까지 모든 공역에 및 집회에 성실히 참여하십시오, 특별한 금요찬양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일주에 비롯한 헌금 생활에 성실히 참여 주시고 전로, 안수집사, 전사 24시간 연속기도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그 동안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2005년도 단기선교를 위한 CMTC총련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CMTC 총련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앞장 내용으로 보강되어 11월 28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찍부터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MTC총련을 통해서 2005년도 단기선교의 방향도 미리 익히고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들이어야만 2005년도 단기선교를 위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분명한 방향을 잡고 준비도 하며 구체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선교를 다녀올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2005년도 단기선교 사역에 동참할 총련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총련에 모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일자 : 11월 28일(주일), 12월 5일(주일)

강의시간 : 오후 6:10~8:10

강의장소 : 갈릴릴을 외 기타전소

총련대상 : 2005년도 단기선교 참가자원자 및 관심 있는 모든 성도

## 교육내용 :

## 달리진정 :

11월 28일 · 제1강 : 선교의 성경적 기초(50분)

· 제2강 : 총련교회 비전과 선교정책(30분)  
· 전도특강(30분)

12월 5일 · 제3강 :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성장(50분)

· 제4강 : 타종교 이해(선택강의/30분)  
· 종교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30분)

· 영성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2005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CMTC  
총련을 실시합니다.

· 일대일전도를 돕기 위한 국내전도특강을 마련  
하였습니다.

· 종교권역별 단기선교 경험자들의 사례 발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말씀(금요집회) - 전국 복음

## 제8장 천국,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2)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이시며 천국이 그의 사랑과 유예 안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5-16). 사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억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오직 신령한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일한 것이다. "...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월요일이 아니요 하느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7).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 곧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신의 목적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하고"(마 16:18,19).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지만 교회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 음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확실한 사실이다(대 2:20). 교회의 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루살렘'이 인데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이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려는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목적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 완성되기 시작하였다고(고전 12:13).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와 사도들을 대표하는 자력으로 하늘의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장차 일할 하늘나라의 열쇠, 곧 장래에 일할 새 세대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닫는 능력과 권세를 맡기신 것이다. 즉,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제 오직 천국에 너희를 가지실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눅 11:52). 하늘나라의 문은 열 수 있는 자식의 열쇠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는데(눅 3:1-2),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가져오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꺼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다(마 23:31). 구약시대에는 자식의 열쇠가 이스라엘에게 맡겨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교회에게 맡겨졌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

께서 말씀하신 약한 종의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마 21:33-42). 이 비유에서 포도원 사람들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였고 마침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 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 비유의 끝머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 21:43).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한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셨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주시는 그의 아들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새롭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로부터 떠나 새로운 백성, 곧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로부터 떠나 가지 복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백성 속속에게 속하게 되었다(벧전 2:9, 갈 3:7, 계 1:6). 예나니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니 때문이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을 대적하고 욕망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가운데서 이미 오시었다(마 12:28).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채록, 호환하기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리되어 복음자는 사탄과 대적하고 침입하고 들어가는 것이다(눅 16:16, 고후 4:4, 골 1:13 참조).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나라이다(대 5: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밟으셨다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어만 하기 때문이다(고전 15:25).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사이에 구별해야 할 점이 굳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때를 포함해서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 때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전 15:24).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통치하시이 교회를 하느님에게 바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팔레스타인의 땅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들의 마음에도 가까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였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였던 것이다(마 10:9,11,17).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교회인 것이다. 이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다(고전 8:12, 28:23,30).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두기 같이 일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골 1:13).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장래의 그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거부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현재 이곳에서, 장래에서도 굳게 닫혀 있게 된다.

# PRIDE PROBLEMS

***“(29)But Peter said to Him, “[Even] though all may fall away, yet I will not.” (30)And Jesus said to him, “Truly I say to you, that you yourself this very night, before a cock crows twice, shall three times deny Me.” (31)But [Peter] kept saying insistently,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ot deny You!” And they all were saying the same thing, too.” (Mark 14:29-31)***

While walking to Gethsemane, the garden on the slope of the Mount of Olives, Jesus told his disciples, “You will all fall away, because it is written, ‘I will strike down the shepherd, and the sheep shall be scattered’”(v. 27). Peter responded, “Even though all may fall away, yet I will not”(v. 29). He almost agreed with what His master said, but not exactly. He was well aware of the other disciples faith levels. He knew their weaknesses, and thus considered him a little higher. His thinking was sort of like one who thinks everyone in their whole family is terrible, but not them. As such, he rather agreed with Jesus that the other disciples would fall away, but certainly not him. Peter had pride problems that were about to become known rather quickly.

Peter's first pride problem was self-confidence. Self-confidence is thinking all will fall away but me. It is the stupid idea of believing in yourself, your own abilities. Peter was sure, meaning he really believed that he loved Jesus the best, and was the most dedicated. When people compare their hearts to others, they are truly deceiving themselves. Proverbs 28:26 says, “He who trusts in his own heart is a fool. But he who walks wisely will be delivered.” To walk wisely means to always watch for and listen to God's message. Peter could not see or hear what Christ was actually saying because his heart was self-confident, not self-denied and thus, not Christ-confident. 1 Corinthians 10:12 says, “Therefore let him who thinks he stands take heed that he does not fall.” Repeatedly the Bible teaches that believers who do not deny themselves fail. You cannot take your cross without denying yourself first. It is a wonderful truth, but many people just do not do it.

Peter's second pride problem was boasting. He kept saying insistently,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ot deny You”(v. 31)! His over confidence in himself meant he want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his own word. He told Jesus, “Lord, why can I not follow You right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Jn. 13:37). His promise to lay down his life for Jesus was sheer boastfulness. He did not seek the things above, but only believed in his own will and way. He did not search and watch for God's will and way. After asking Peter to keep watch over Him while He prayed, Jesus said to him, “Simon, are you asleep? Could you not keep watch for one hour? Keep watching and pray that you may not come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Mk. 14:37-38). Again, Peter fell asleep and did not keep watch over Jesus, as he promised. His boastful words amounted to nothing but disgrace.

Peter's third pride problem was not revealing or practicing his faith. As they took Jesus before Caiaphas,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and tried to blend into the crowd (Mk.14:54). He was scared and shameful. He promised his master that he would never fall away, he even boasted about it, but he watched his master a little further away. Jesus was in trouble, and Peter was afraid of it. He was a criminal about to face serious charges. He was no longer fun to be around, and His popularity was near zero. For Peter, Jesus' word became not as important as the crowd's eyes staring at him. He did not do what he said he would do. He did not practice his faith. Instead, he sat among the enemy in fear. Just as Demas deserted Paul, so Peter abandoned Jesus(see 2 Tim. 4:10).

Lastly, Peter's pride problem led to denying Jesus Christ. He chose the way of the world, and in so doing denied his master. The same is true today. If you choose to follow what is popular and trendy, instead of the ancient way, you will indeed deny Jesus Christ. A woman approached Peter and asked if he was a member of Jesus' group, and he told her, “I neither know nor understand what you are talking about”(Mk. 14:68). Jesus had already said, “But whoever denies Me before men, I will also deny him before My Father who is in heaven”(Mt. 10:33). When other bystanders began to ask him the same question, Peter began “to curse and swear, ‘I do not know this man you are talking about’”(Mk. 14:71). His cowardice over earthly things led him to curse and swear. His denial of his master was leading him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Jesus.

Pride problems are dangerous, perhaps the root of all evil. The good news is that Peter repented. When Peter denied Jesus the third time, Jesus turned to look at him.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He had told him, ‘Before a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Lk. 22:60-62). Mark 14:72 records the same scene,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a second time. And Peter remembered how Jesus had made the remark to him, ‘Before a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And he began to weep.” His heartfelt shame and sorrow saved him.

My dear friend, are you proud of yourself? Do you love to boast and show off your confidence? If you do, then you are not watching your faith, and you will end up following after earthly things, which lead you to deny your Savior. Please humble yourself. Pride leads to self-confidence and boasting, which lead to not keeping a close watch on Jesus. Not keeping a close watch on Jesus leads you to not practicing your faith; this leads to cursing, swearing, and denying Jesus Christ. Do not let your pride take you away from Jesus. Repent and come back to the Lord God. He will forgive you, and take you under His complete care. Peter repented, and faithfully served Jesus Christ for the rest of his earthly life. **M**

# 교만의 문제

<sup>29</sup>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sup>30</sup>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sup>31</sup>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막 14:29-31)



김성완 목사

예수님은 감람산의 비탈길에 위치한 겔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27절).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셨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29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연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자기 집 식구들은 다 나쁜 사람인데 자기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가이 동이했지만 자기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방 돌풍이 몰아칠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교만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믿게 만든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교만의 문제는 자기 확인이었습니다. 자기 확인은 다른 모든 사람의 실패에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자기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비교할 때, 우리는 결국 스스로 속게 됩니다. 잠언 28장 26절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신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 교만은 자기 자랑과 허풍을 낳는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두 번째 교만의 문제는 자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31절b). 자기 자신에 대한 이처럼 지나친 확인은 그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하여 파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37). 그러나 그의 이런 말은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의지와 방법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편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에 약하다”(막 14:37-38). 그러나 베드로는 또 다시 잠들었고 자신이 주님께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허풍스러운 말은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 교만은 믿음의 실천을 가로막는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세 번째 교만의 문제는 믿음을 드러내거나 실천하지 못했

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앞에 세웠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려고 했습니다(막 14:54).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창피했습니다. 일전에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했던 베드로였건만,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곤란에 처해 있었고 베드로는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은 중형을 선고받을 운명에 처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이 되었고 인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했던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서 원수들을 볼 줄도 알아있었을 뿐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렸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딤후 4:10).

## 교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돈다

마지막으로, 교만의 문제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였고, 결국 주인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 길을 버리고 현대의 유행을 쫓아간다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막 14:68). 일찍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자를 부인하리라”(마 10:33). 곁에 섰던 사람들도 똑같이 묻자 베드로는 “저 주여 맹세하리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막 14:71)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저주하며 맹세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교만의 문제들은 위험하며 어쩌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린했을 때,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배급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밤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 22:60-62).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마음깊이 부끄러워하고 슬픔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번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여러분의 구주를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해지십시오. 교만은 자기 자신과 자랑을 낳고, 자기 자신과 자랑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저주와 맹세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교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초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나는 생애 동안 실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ㅁ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메시아의  
증거들

(마 27:45-54)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다. 십자가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가 메시아이신 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한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이 입을 열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은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제 육 시로부터 은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45절). 그 때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서 3시 사이였다. 하루 중 가장 환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동안 은 땅은 철쭉 같은 흑암으로 뒤덮였다.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연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 어둠은 유대인들의 감잡한 무지와 완악함을 보여주는 흑암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믿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후 4:3,4). 이러한 어둠은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애굽 은 땅에는 삼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임했었다. 이 흑암은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를 증거하는 흑암이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은 땅에 임한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되심을 증거하였다.

##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50,51절). 지성소 들어가는 곳에 철긴 가죽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휘장이 쳐 있었는데,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는 죄인들도 이제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렸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이 열 수 없는 길, 율법도 열 수 없었던 그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활짝 열렸다(히 9:7,8). 광명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활짝 열렸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대니”(골 1:20,22).

## 유대인들의 예식을 능가하는 언약의 중보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이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다”(히 8:6).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예식이 얼마나 중요했었나!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식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보혈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엡 2:13-15). 이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요일 2:2).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다 부르셨던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그러면 그 분이 여러분을 아무런 차별 없이 다 부르셨다. 그것은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이다. 날로 더욱 귀한 사랑이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51절). 견고하던 땅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그대로 서 수 없어서 깨어지고 말았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났다.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지켜보던 땅과 바위는 감당할 수 없어서 흔들리고 깨어지고 터졌다. 저 옛날 시간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듯이(출 19:18),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발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듯이(사 18:7).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니”(학 2:6,7)라는 말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땅과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진과 티킴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보여주셨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자다가 땅에 쏟으매 뇌역과 요상과 반배와 지진이 나더라”(계 8:5).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갈이 되며”(계 6:12). “하늘은 종이 죽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자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지 보아에 앉으신 이의 밋에서와 이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4-17). 이처럼 엄청난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회할 길이 열렸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철저하게 무기를 당했지만 달 못하는 자연에 의해서는 메시아이심을 증명받았던 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피할 길이다. 진노 아래 있고 싶거나? 아니면 온종의 날에 그들 아래 있고 싶거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그 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 그리고 그 분을 믿고 순종하라. 아멘!

## 장로칼럼

##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김 종선  
(장로, 8교구장)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재물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눅 12:42,44).

교회 내 식당봉사, 차량봉사 그리고 장례부서 등 누가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들을 바라보면 여러모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연합할 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내가 피로 말미암아 피로워 할 때 주님은 속죄의 온종을 주시며 협동이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위로 하시며, 계단계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평생을 얻었네.” 이같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자녀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열려있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의 열려함으로 그 기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시며 내일 일을 위해 열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은 나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미리 부족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결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길을 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하루 일할 양식을 주시며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 속의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 날에 명륜한 기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b)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험한 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천히 하늘로 솟아 감람하서서 심판하실 때 우리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 우편에서 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신 십자가 붙들고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아 연약하지만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내 노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려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게 하리라”(사 101:6). 아멘.

##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

이런 전교를 다녀온 우리 팀은 11명중 9명이 두 번째 그 나라로 전교를 가는 것이었다. 나는 팀장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 팀장을 맡은 것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혹이나 팀원들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좀 안다고 자만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지로 향했다.

사역 첫날, 우리는 처음에 계획하고 왔던 지역으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역을 옮기게 되어 약한 낙담을 하였지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만족스럽게 사역을 하지는 못했다. 그날 밤 평가의 시간에 팀원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우리들은 다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고 이후 사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 팀 전원은 사역을 거듭할수록 현재 사역지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모두 주어진 사역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 아쉬워했다.

그곳 사람들은 양순하였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순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 학생은 '물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었다. 그 학생과 함께 영어 전도문과 현지어 전도문을 동시에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질은 얻기 위함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 학생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며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사역한 땅에 우리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었다. 아멘.

최성기(간수집사, 직원팀)

## 중요한 확신

어렸을 때 영화 '십계'를 보면서 바로 왕이 그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영화를 수십 번도 더 보면서 '내가 저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을 전해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 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그냥 무모하게 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때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의무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경험해가면서 험한 선교의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고등부 내에서 선교를 간다고 고등학교 때의 귀한 경험도 될 것이고 고3이 되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준비기간 초기에는 주님이 사용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언어공부도 열심히 했고, 팀 연습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성경도 평소보다 많이 읽었다. 하지만 어느새 교만해서 무엇이든 내 힘으로 완수해서 하려고 애쓰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교가기 며칠 전에 깨뜨리시고 기도롭게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간 곳곳에서도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새로운 것들에 더는 나고 있고 그 곳의 영혼들을 위해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 전도하는 영혼들보다 너무 완고하게 닫혀 있음을 고백하고, 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나고 불평만 늘어놓았다. 기도는 하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가서 기대만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잘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 나를 그 먼 곳까지 보내셔서 사용하신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 나이가 어서 세상을 사는 목적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이번 전 선교에 대해 조금 안타깝게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진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좋은 경험이었다.

유선인(고등부)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에 도착한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습다. 그러나 점점 그 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다. 크리스천인 현지인 운전기사 아저씨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때그때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오지로 우리를 인도했습다. 그때마다 기적같이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다. 그 아이들은 처음에는 모두 부끄러워했지만 차츰 우리의 찬양을 듣고 물러들었습다. 그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며 눈을 감고 기도했습다. 우리가 떠날 때는 차에까지 같이 와서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어서 주웠습다. 어른들도 우리를 피하되하는 전도지를 함께 읽어주며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다. 그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진지하게 우리를 고마워했습다.

어느 날 한 식당에서는 유난히 많은 종업원이 우리 앞에서 서 있었습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마라보는 것이 어색했습다. 마치 우리가 원수인가 된 것 같아 두렵거렸습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의 불평이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다. 15명의 종업원들이 저마다 전도지를 읽으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다. 우리는 하마터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몰라볼 뻔했습다.

사역 마지막 날에는 비가 올 것 같아 먹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습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음을 멈추라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습다. 잠시 나무그늘에서 쉬며 빵을 먹고 나서 마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많은 무리의 어린이들이 만날 수 있었습다. 우리가 간 선교지는 우기여서 비가 한 번 오면 우박같이 무섭게 내리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만 비가 오지 않았습다.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올라타자 그때야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다. 우리와 함께 사역한 운전기사 아저씨는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다. 앞으로 나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전적으로 그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다.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사히 사역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윤신(청년1부)

### 두근두근 선교일기 ①

## 하필이면 첫날부터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 집사님의 교구팀에 속해 선교를 가게 되었다. 두 번째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준비기간에는 별로 긴장되지 않았는데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니 마음이 몹시 떨리고 긴장이 되었다.

게다가 우리 처음 첫날부터 한두교 골수분자를 만나서 선교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 어떤 속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 데 골수분자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기도를 방해하였다. 그에게도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의 표정이 굳어있었다. 대부분 항상 웃는 얼굴인 그 나라 사람들이라 당리 그 청년은 표정이 어두워 경계심이 생겼다. 그는 전도지를 읽더니 마구 구겨서 둘러싸고 다들 열려라 우리를 내쫓았다.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마다 뒤를 쫓아와서 우리가 건네준 전도지를 빼앗아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다가 동네 청년들을 데리고 오더니 열려라 하고 내쫓아서 우리를 하는 수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필이면 첫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봐 은근히 겁이 나고 경계심이 생겼다. 그러나 점차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처음보다 많은 말을 해주며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을 알게 된 운전기사 아저씨는 우리 사역 기간 중 크리스천과 한두인들이 싸움을 한다고 말했다.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사원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하고 선교하는 것을 막으려와 겁이 났다. 운전기사는 자기는 아무 문제없지만 우리한테는 아파해 갈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기도해서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빨리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다보니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선교에 더 열중하게 되었다.



이진한(중등3부)

# 다짐

김정수(집사, 1교구)

믿음 가운데, 회개의  
합당한 열매로서  
사망을 행토록 한다.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아  
내 형제, 내 이웃을  
애써 섬기고 배회되

모진 풍파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 밝은 새 아침을  
고대하며 내 마음,  
비록 부족할지라도  
구원된 기쁨을 전하  
이것을 알고

가여운 내 자신을  
내면개치기를 말고  
든든한 주님 안에  
시원스라이 아름다운  
날개를 펴도록 한다.

주 사랑 가운데서  
빛과 소금됨으로  
열매를 맺도록 한다.

## 나의 신앙 키워드 '감사'

내가 천국교회를 다니게 된지는 어언 14년, 내가 다니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보다 굳이 교회라는 곳에 다니야 할 이유를 물렸지요. 이유를 찾은 건 내가 고등학교를 막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나의 마음 속에는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내가 넘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학입시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나 혼자서는 건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기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고등학교생으로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나는 아무 약속도 없이 소파에 앉아 평글론사의 친구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던 TV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를 보내고 있었습니. 이 이유 없는 시간을 보낼때 TV에서는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모세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때 영화를 통해 내가 본 그 기억들, 그리고 그 영화 속 위대한 일들을 보고 나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별일 때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속해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억들을 알고서도 두려움에 때는 내가 한심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나 역시 '두려움에 별일 때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디더이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본은 '감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늘에 계신 그분께 감사하며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성장하고 싶습니다.



박솔기(고등부)

##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히 잘 만드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커가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학년 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친구를 전도할 때는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친구들이 안 나오면 속상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끔씩은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전도한 친구들이 안 나오면 너무 속상하였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하나님께 '제발 전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받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친구의 부모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를 왜 하나님 전도를 하면 내 마음도 뿌듯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임현지(초등부)

## 고(故) 박종해 성도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11월 6일(토) 오후 1시 30분에 한 분의 성도가 병환 침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 30대에 혼자가 된 후 샅바느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을 일로 생계를 유지해 오면서 천국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었던 본 행년 88세의 고(故) 박종해 성도! 주년에는 그 분의 죽음을 지켜봐 주는 친지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지만, 침으로 귀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시 116:15). 장례식은 11교구장으로 이루어졌고 고인의 시신은 천원동산에 안장되었습니다.

가나니 세월 외로운 삶이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그 분이 남기고 간 자취는 따뜻하였습니다. 힘들게 살던 고인을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늘 곁에서 돌봐 주었던 11교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도 매우 따뜻하고 애절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현금으로 기탁하여 천국일교양성에 써 달라고 부탁한 고인의 헌신도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이 서로 오고 가는 가운데, 결국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니 침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침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 발자국

최형원(중등1부)

그분 앞으로 다가갑니다.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분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분 앞으로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박솔기(고등부)

## 교회탐방 41 핸드벨라이어

##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리

가끔은 어린 아이들만, 또 가끔은 어른이  
이들과 어른들이 섞여서 각종 크기의 종들을  
들고 나와 신비로운 음을 내며 찬양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종 들  
고 뭐하겠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그  
거룩하고 맑은 소리를 들으면 곧 천사의 소  
리를 듣는 듯 깊은 묵상에 빠진다. 그 소리  
는 성도들의 최선에 거룩하라고 모호하는 듯  
하다.

## 핸드벨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악기 중 종교음악에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즉, 마음을  
성결케 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준비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악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악기는 만들어진 목  
적으로 따라 그 소리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이르테먼 일렉트릭 기타는 록음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감정을 강하게 폭발시키기에 알맞다. 그러나 핸드  
벨은 애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  
광과 거룩함을 묵상하기에 가장 알맞다. 더군다나 핸드벨은 혼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드러나거나 유명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직 음악의 주인공, 즉 주님만을 드러내기에 가장 알맞은 악기이다. 특히  
핸드벨은 구리와 주석이 8:2의 비율로 섞여 있는데, 금속을 마찰할 때 이 비  
율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한다.



## 충원교회 핸드벨 파이어는

198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충원교회  
핸드벨 찬양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핸드  
벨 종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반에는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했으나 근래에는  
오직 찬양에 임쓰자는 취지로 찬양 연습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은 핸드벨  
대회에 나가는 등, 충원교회의 이름을 알  
리는 대외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성탄절  
에는 병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찾아가 찬

양을 들려주고 주님을 전하는 등, 주님만을 드러내는 대외 활동은 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주병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주어 아이들을 위로하고 주  
님의 영광을 알렸다.

## 곡 선정은

찬송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 분의 선생님과 한 분의 단장님과 더불어  
3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청년부까지 모두 함께 연주  
를 진행한다 보니 연령층이 넓고 경계도 많이 차이나 연습을 함께 하는 데 어려  
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성도와 모습이 없으면 한 곡의 찬양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실력 차이보다 협동과 서로 사랑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나이, 경력, 실력이 많이 차이나는데도 매 주 찬양을 잘 준  
비하고 있다.

핸드벨 찬양단은 유심치 본 성도라면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것  
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차임이다. 핸드벨은 소리가  
날카롭고 화려한 반면 차임은 소리가 부드러운 날카로움과 화려함, 부드러운  
함께 어울려진 소리를 낼 때 마치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핸드벨 찬양단 단원을 하다 보면,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팀이 하나 되어 주님  
을 드러내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음악적인 리듬감과 협동심도 더불어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핸드벨 찬양단은 개인적이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개인의 인내심  
을 요구한다. 인내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핸드벨 연습은 매주 1시 30분부터 본당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실)



## 다음 주일 찬송

##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주"

다음주일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주"는 요한복음 10장 11-12절에 있는 "나  
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인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  
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작곡자인 윌리엄 베셀드 브래드버리(1816-1868)는 미국 메인주 태생의 교회  
음악가로 음악에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는 독일 유학을 거쳐 피아니스트, 작곡가,  
찬송 지휘자로서 미국 음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작사자인 도로서  
엔 트러프(1779-1847)는 영국 런던 태생의 여류 찬송작가로서 '요타'(Iota)라는  
필명으로 교회 잡지에 여러 편의 어린이 찬송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녀는  
예수를 목자로, 성도들을 어린양으로 비유하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1,2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은유로 3,4절은 심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  
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평생을토록 나아  
갈 구원의 길이 되신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로 인해 막혀있는 하나님  
과 인간사이의 장벽을沟通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바로 이 예수님을 찬  
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자.

(찬양위원회)

## 새·가·족·을·환·영·합·니·다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2787 | 조정래 | 17 | 장년3부 | 김연식(6)  | 2798 | 이혜원 | 19 | 고등부  | 김남옥(1)  |
| 2788 | 김승주 | 19 | 중등2부 | 김영희(2)  | 2799 | 송석춘 | 4  | 청년2부 | 최효일(15) |
| 2789 | 김영식 | 16 | 장년1부 | 김지순(17) | 2800 | 이용한 | 3  | 장년1부 | 허만선(3)  |
| 2790 | 노재술 | 2  | 고등부  | 김정연(6)  | 2801 | 김인귀 | 10 | 장년2부 | 황향(4)   |
| 2791 | 김성만 | 19 | 청년2부 | 양윤선(19) | 2802 | 한재신 | 17 | 청년2부 | 황향(4)   |
| 2792 | 나혜진 | 19 | 청년1부 | 양윤선(19) | 2803 | 김창일 | 15 | 청년1부 |         |
| 2793 | 김병희 | 2  | 장년1부 | 김미자(18) | 2804 | 윤지혜 | 19 | 예배대부 | 임지선(19) |
| 2794 | 서정숙 | 1  | 장년2부 |         | 2805 | 이지연 | 19 | 대학부  | 정한나(9)  |
| 2795 | 예우해 | 19 | 고등부  | 박지영(1)  | 2806 | 광홍환 | 19 | 외선부  | 황정미(7)  |
| 2796 | 김현수 | 2  | 대학부  |         | 2807 | 이나영 | 19 | 대학부  | 김효주(4)  |
| 2797 | 이명자 | 8  | 장년3부 |         |      |     |    |      |         |

